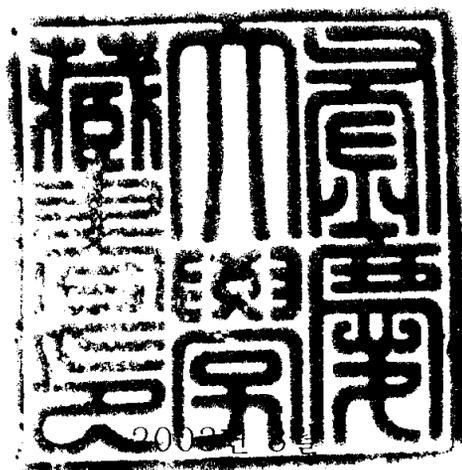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7차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인지언어학적 구동사 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 전공

원 자 희

원자회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6월 일

주심 영어학 박사 박 순 혁



위원 문학 박사 김 보 희



위원 영어학 박사 김 은 일



목 차

ABSTRACT	ii
I 서 론	1
II 구동사 연구의 이론적 배경	4
2.1 구동사의 정의	4
2.2 구동사의 은유적 확장	6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15
3.1 분석자료	15
3.2 연구방법	16
3.2.1 형태중심의 연구	17
3.2.2 개념중심의 연구	22
IV 구동사의 분석 및 교수방안	25
4.1 분석결과 및 토의	25
4.1.1 원형의미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	25
4.1.2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30
4.1.3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33
4.1.4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	38
4.2 교과서별, 영역별 및 6·7차 교과서 비교	41
4.2.1 교과서별 영역별 비교	41
4.2.2 6·7차 교과서 비교	43
4.3 효과적인 교수방안	46
V 결 론	49
참고문헌	51

A Cognitive Analysis of English Phrasal Verbs Used in Korean Secondary School English Textbooks

Ja-hee W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English phrasal verbs used in Korean secondary school English textbooks from a cognitive point of view. By analyzing how English phrasal verbs are presented in these textbooks, we can identify the difficulties students undergo in learning English phrasal verbs. The author will suggest a more effective way of teaching phrasal verbs based on cognitive analysis.

The data, consisting of 30 phrasal verbs, were obtained from twelve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In analyzing the phrasal verbs, the author adopted two approaches suggested by Driven and Verspoor (1998): the form-based approach (semasiology) and the concept-based approach (onomasiology). The data show little correspondence between Korean secondary English textbooks and the cognitive categories used in these approaches.

More effective teaching of English phrasal verbs in Korea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English phrasal verbs should be presented in both the

prototype and abstract meaning with both the idiomatic and literal meaning stressed. Furthermore, the polysemic difficulties in language transfer of phrasal verbs from learners' first language to the target language must not be overlooked. Various examples should be given to emphasize the variety of meanings for each phrasal verb. Finally, English phrasal verbs should be presented together with other phrasal verbs related to their meaning in order to further an understanding of English phrasal verb behavior.

I 서론

구동사란 동사와 불변화사(particle)가 통사론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는 것이다.¹⁾ 예를 들면, *put out*(끄다), *cut back*(줄이다)과 같은 표현으로 흔히 속어(idiom)라²⁾ 불린다. 이러한 구동사는 영어에서 빈번히 쓰이고 있는데,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 단어를 학습해야 하는 것처럼 영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구동사를 학습해야만 한다.

그러나 구동사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이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 Celce-Murcia & Larsen-Freeman(1999)은 구동사의 문법적인 특징을 3가지 차원-형태적 차원, 의미적 차원, 사용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분류에 따른 각 차원에서 학습자가 구동사를 학습할 때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태적 특징에 따른 어려움이다. 한 단어로 사용되는 동사와 달리,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문법적 단위'로 사용되는 독특한 형태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되며, 회피현상을 유도한다(Dagut & Laufer 1985, Laufer & Eliasson 1993).

1) 구동사에서 동사의 뒤에 오는 것을 전치사, 부사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모두를 불변화사(particle)로 지칭하기로 한다.

2) Bolinger(1971), Fraser(1974), Palmer(1974), Quirk(1975), Hook(1981), Courtney(1986) 등은 구동사를 군집동사(Group Verb), 관용적 동사(Idiomatic Verb), 다어동사(Multi-word Verb), 구동사(Phrasal Verb), 복수동사(Poly-word Verb), 분리가능 복합어(Separable Compound), 2단어동사(Two-word Verb), 동사-부사 결합(Verb-adverb Combination)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하였는데, 한국어 학습자들 사이에서 구동사는 흔히 속어라 불린다.

둘째, 의미적 특징에 따른 어려움이다. 구동사의 의미는 각 구성 단어의 의미로부터 쉽게 예측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많다. 그래서 Larsen-Freeman(1991)은 구동사와 관련된 문법 특징 중 의미 차원이야말로 ESL/EFL 상황의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장애 요인이라고 하였다. Hulstijn & Marchena(1989)는 구동사의 의미는 체계성이 없이 나타나므로 의미파악이 어려우며, 이는 영어를 학습하는 모든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상 특징의 어려움이다. 구동사는 목적어를 취할 때 구동사의 한 요소가 분리되어 위치 변동을 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정보를 강조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Palmer 1974). 이러한 특징은 특정 맥락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ESL/EFL 상황의 학습자들에게 구동사의 이러한 특징은 학습 시 어려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 ESL/EFL을 배우는 학습자들은 구동사의 사용을 회피하고 단일 동사형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 역시 이러한 이유로 구동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look back*의 의미는 ‘회상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뒤 돌아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뒤 돌아보다’는 의미에서 ‘회상하다’의 의미가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의미 파생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구동사를 ‘회상하다’의 의미로만 외우기 때문에, 일상 회화 상황에서 *Look back* (뒤 돌아봐)과 같은 기본적인 표현은 쉽게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구동사의 형태를 단순히 암기하기 때문에 *sit down* (앉다)은 잘 알고, 쉽게 구사할 수 있지만 *sit up* (일어나 앉다, 바로 앉다)과 같은 표현

은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구동사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부족은 영어표현의 활용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영어학습에 대한 효율성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구동사가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인지 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둘째, 구동사를 보다 쉽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지언어학적 설명과 효율적인 교수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절에서는 본 논의에서 이용될 구동사와 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제 3절에서는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 4절에서 구동사 분석의 결과를 토의하고 효율적인 구동사의 교수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절에서 논의를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II 구동사 연구의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구동사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구동사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구동사를 분석하기에 앞서 구동사의 개념과 본 연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동사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2.1 구동사의 정의

구동사의 구라는 말은 단어와 단어를 조합한 것을 말한다. 보통의 동사가 한 단어인 것에 비해, 구동사는 *get up*과 같이 동사와 불변화사가 함께 오는 것으로서, 그 대부분이 의미상으로도 종종 문법적으로도 전체가 마치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구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구동사를 이루는 동사와 불변화사들이 각각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과 구동사 자체가 은유적인 의미의 변화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1) a. He *blew up* the balloon.
- b. The balloon *blew up*.
- c. He *blew up*.

여기서 구동사 *blow up*의 의미가 (1a)의 ‘부풀다’라는 의미에서 (1b)의 ‘터졌다’라는 의미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1c)의 *blow up*에서 ‘화가 나다’와 같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는 한국어의 ‘분노가 폭발하다’와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화내는 것’은 ‘터지는 것’ 즉 ‘폭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여 ‘분노’가 ‘폭발’로 비유된 것이다. (1b)와 (1c)사이에는 은유적 의미 확장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구동사(동사+불변화사) 자체가 은유적 변화를 일으키는 한 예이다.

구동사는 그것을 구성하는 동사나 불변화사에 갖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이상과 같이 구동사 자체로서 은유적 의미변화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므로 동사나 불변화사 각각의 의미만으로 그 의미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 (2)를 살펴보자.

- (2) a. She *took* her skirt *up*.
 b. She *let* her skirt *down*.
 c. She *cut* her skirt *down*.

(2a, b)에서 *up*, *down*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가깝게 (스커트 등의) 길이를 ‘올리고, 내리고’의 의미로 쓰였음에 비해 (2c)의 *down*은 비유적인 ‘감소하여’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2a)의 *up*과 같은 표면적으로 반대의 의미인 것이 같은 의미가 되거나 표면적으로는 같은 의미인 (2b)의 *down*과 반대 의미가 되기도 한다.³⁾

이와 같이 구동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학습자들이 학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구동사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구동사를 이루는 각각의 동사와 불변화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3) 물론 여기에는 동사의 의미도 관련된다. 자세한 설명은 김정기(1994) 참조.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2 구동사의 은유적 확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동사의 이해와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구동사를 이루고 있는 동사나 불변화사 각각이 은유적 확장에 의해 의미가 변화하거나 혹은 구동사 자체로서 은유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최근 인지문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단어들의 기저에도 의미상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미의 은유적 확대 과정을 근거로 구동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Whorf(1962)와 Kennedy(1920)는 구동사에 사용되는 *out*, *up*, *in*, *down* 등의 불변화사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의 관련성을, Bolinger(1971)는 이들 불변화사의 의미 확장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가 기초를 이루고 1980년에 Langacker의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이 도입되면서 단어의 다의성과 의미와 의미사이의 관련성이 깊이 있게 다루어져 구동사에 대한 연구가 한층 더 발전하게 된 것이다. Linder(1983)는 불변화사 *out*과 *up*이 사용된 구동사의 의미를 인지언어학적인 접근, 특히 Langacker(1987)의 공간문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녀는 Lakoff & Johnson(1980)의 은유이론과 Fillmore(1982)의 틀 개념을 이용하여 구동사의 의미도 계속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동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적인 가정을⁴⁾ 제시하면서 구동사에 사용된 불변화사 *out*이나 *up*의 의미를 공간적인

4) Linder(1983)는 구동사를 이루는 동사와 불변화사의 의미가 자의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세 가지 가정을 제시했다.

· The semantics of verb-particle constructions are not arbitrary; the meanings of verb-particle construc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관점에서 밝혀냄과 동시에 구동사의 은유적 의미 확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기동(1978)은 구동사에 규칙성과 체계성이 없다는 종전의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여준다.

“첫째,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규칙성이 없는 관용어라고 배워 왔던 구동사가 모국어 화자에게는 동사와 전치사적 부사의 구성요소로부터 그 의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구동사가 언어의 창의적인 면을 보여준다. 즉, 새로운 관용어구가 생겨 나오고 이미 쓰이고 있는 관용어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질 수 있다. 관용어에 규칙성이 없고 굳어져 버린 표현이라면 이러한 창의적인 면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p114)

위의 Linder(1983)와 이기동(1978)의 주장에서 보듯이 구동사의 의미는 더 이상 자의적인 것이 아니기에 구조적 측면에서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구동사를 이루는 각 구성 성분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구동사를 이루고 있는 불변화사가 어떻게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불변화사 *up*에 대한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설명하고자 한다.

Linder(1983)에 의하면 불변화사는 하나의 핵 의미(core meaning)를 가지고 다양한 영역 속에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진다고 한다. 불변화사 *up*을 보면 그 수직성(verticality)은 *up*이 가지는 의미의 전형적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up*의 중심축은 수직적이 아니라 오히려 접근(approach)과 같은 의미로 작용한다.

(aspects of) the individual meanings of the component verbs and particles, by inheritance and/or by (metaphorical or metonymic) extension.

- The verb contributes the source domain of the verb-particle construction, whether literally, metonymically, or metaphorically.
- The particle of the verb-particle construction is the expression of a cognitive image schema (e.g., containment, verticality), which may be instantiated literally or metaphorically.

*up*의 은유적 확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up*이 관련된 동사들은 완료성(perfectivity)과 완결성(completiveness) 그리고 성취성(accomplishment)등으로 특징지어 지는 것을 보게 된다. 불변화사 *up*은 기본의미 즉 ‘수직성’ 이외에 여러 의미연장 즉, 낮은 위치나 장소로부터 높은 곳으로의 동작 표현, 질이나 강도에서 증가, 개선과 증가,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거나 그 상태로의 접근, 정상으로부터의 붕괴와 손상, 완성과 마무리, 어떤 것의 양도나 거절, 일의 발생과 창조, 어떤 것을 한데 모으는 수집과 종합, 정보의 누설과 발견, 사람이나 사물의 대상으로부터의 분리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⁵⁾

1) 수직성(verticality)의 *up*과 의미확장

① 공간적 영역 속의 경로

*up*은 동사의 일시적인 윤곽 속에서 연속적인 점들과 관련된 공간에서의 일련의 경로를 나타낸다. 다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형적인 *up*의 예이다.

- (3) a. The boy *climbed up* a tree.
 b. They *walked up* the hill.
 c. She *went up* the stairs very carefully. (이기동 1998: 298)

위의 예문 (3a)에서는 소년이 나무의 수직적 경로를 그대로 따르므로 *up*의 전형적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3b, c)에서처럼 *up*의 경로는 똑바른 수직선 상 외에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불변화사의 은유적 확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up*의 다양한 확장 의미 중 몇 가지 의미만 제시하도록 한다. 불변화사 *up*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inder(1983), 이기동(1998) 등을 참조바람.

② 양이나 수, 정도의 증가

*up*의 의미는 이러한 수직축을 중심으로 연장되어지는데 Lakoff & Johnson(1988: 22)에 의하면 양(quantity)은 전형적으로 크기(size)에 연관되고, 크기는 높이(height)에 연관된다고 한다. 이렇게 크기와 수직적 치수는 모두가 양에 대한 은유로 나타나므로 수직방향의 개념은 추상적 영역-사회적 서열, 어떤 가치 설정 등-을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공간영역에서의 *up*은 수직축을 따라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옮겨가고, 추상적인 영역에서는 증가 또는 발달의 개념이 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4) a. Wage increases have *pushed up* the prices of electricity.

b. *Turn* the volume *up*.

(5) a. He's really *moving up* in the world.

b. When he heard that his mother was safe, he immediately *cheered up*.

(6) This system is to *speed up* the work of factory inspection.

(이기동 1998: 308-309)

(4a)에서 *up*은 추상적인 가격의 양을, (4b)에서의 *up*은 소리크기에 따른 증가를 나타내는데, 상당히 은유적이다. (5a)의 *up*은 사회 계급 구조에 따른 변화를, (5b)의 *up*은 분위기의 변화에 대한 묘사이다. (6)의 *up*은 공장 점검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예들은 서로 모순적이지만 방향을 무시하면 원래의 위치에서 변화의 양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2) 목적 지향적인 *up*과 그 의미확장

우리는 이미 불변화사 *up*이 지향적인 물리적 공간 영역 속에서 수직축을 따라 직접적인 경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았다. 이런 불변화사 *up*과는 대조적으로 목적 지향의 *up*의 경로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영역에서가 아니라 추상적 물리적 공간에서 수직적인 크기에 반하여 정의된다.

① 영향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근접, 연결, 연관

물리적 접근을 나타내는 불변화사 *up*은 (7a)에서와 같이 어떠한 영향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영역 속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진다.

(7) a. He always tries to kiss/ play/ make *up* to his teacher.⁶⁾

b. I think he's building/ working *up* to a confession.

(7a)와 같은 노력들의 목표는 보다 높은 혹은 더 나은 사회적 상태인데 이때 *up*은 지배 종속적인 관계를 조직하는 연장된 추상적 개념의 수직적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7b)의 예문에서는 *up*에 의해 최종적인 결과나 결론에서 최고에 달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예문들에서 *up*의 개념은 구체적 공간의 수직의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 영역에서 상위의 개념으로 변화된다.

다음의 (8)의 예문들은 *up*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사용되었을 때의 또 다른 예들이다.

(8) a. Does he come *up* to expectations?

6) 구동사는 두 단어의 조합(동사+불변화사) 뒤에 다시 전치사나 부사가 오기도 하는데,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두 단어의 조합(동사불변화사)에 제한하기로 한다.

b. He doesn't measure *up* to our standard. (이기동 1998: 318)

예문 (8a, b)문장에서와 같이 *up*은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달한다'라는 은유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up*이 공간이나 어떤 추상적 영역에서 목적대상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표현함을 살펴보았다.

② 완성과정

다음은 *up*이 개체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쓰일 때의 경우를 살펴보자. 예문 (9)의 동사들의 진행영역은 다소 덜 추상적이다. (9a, b)에서 *up*은 개체 자체에 한계가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9) a. He *pumped up* the tire.

b. She *filled up* the rest of his shelves with dirty books.

위 (9a, b)의 예문들에서 *fill* 즉 '채우다'라는 의미의 동사는 그 자체만으로 어떤 대상의 용량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여기에 *up*을 더함으로써, 제한된 공간으로 다가감으로 인해서 그 용량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더욱 두드러지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와 같이 용량을 나타내는 *fill up*은 추상적 대상에 부여되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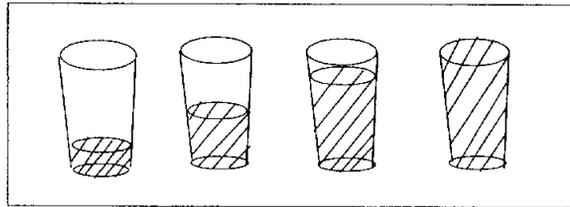
(10) a. He *filled* my mind *with* strange ideas.

b. He *filled up* my mind *with* strange ideas.

(10a, b)의 예문들은 비슷한 의미이지만, (10a)는 내 마음 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있음을 말해주는 반면, (10b)는 내 마음이 그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다른 생각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이상한 생각들로 가득차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차이는 *up*이 수직의 개념에서 완성의 개념으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다. *up*이 수직 개념에서 완성 개념으로 이동해가는 과정을 이기동(1998: 318)은 빈 컵에 물을 붓는 과정을 예로 들어 <그림1>과 같이 나타낸다.



<그림 1>

빈 컵에 물을 부을 때 컵에 들어가는 물은 점점 위로 올라와서 가장자리에 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이 가장자리가 컵에 물을 붓는 과정의 마지막 한계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up*은 한계점 혹은 목표점에 달한다, 즉 완성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③ 대상전체에 작용하는 과정

*up*이 대상 전체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 (11) a. He *cleaned* his room.
- b. He *cleaned up* his room.
- c. John *fixed* his bike.
- d. John *fixed up* his bike.

(11a)의 *clean*과 (11b)의 *clean up*은 각기 다른 활동성을 나타낸다. (11a)의 *clean*은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진공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먼지를 제거하는 일련의 청소작업을 의미한다. (11b)의 *clean up*은 방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옷을 정리하고, 차곡차곡 물건들을 정리함을 의미한다. 즉, *clean up*을 *clean completely*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11c)에서 *fix*는 단순히 고장난 자전거를 수리한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11d)에서 *존*은 그것을 팔기 위해 깨끗하게 새 것처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up*이 결합됨으로써 동사의 의미 진행영역은 (12)처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 (12) a. He *shut/ closed/ locked* the shop.
 b. He *shut up/ closed up/ locked up* the shop.
 c. She *got dressed*.
 d. She *got dressed up*.

(12a)는 밤에 가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건물 내에 넣고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는 과정의 전 영역을 포함한다. (12b)는 몇 분 만에 행해지는 단순히 문을 잠그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d)는 (12c)처럼 단순히 옷을 입는 *dress*와는 달리, 좋은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머리를 만지고 화장하고, 향수를 뿌리는 것 등도 포함할 수 있다(노수진 2002). 이상과 같이 위의 예문(12b, d)에 쓰인 불변화사 *up*은 전체 행위를 강조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사와 불변화사의 결합에 있어 가장 빈도가 높은 불변화사 중 하나인 *up*을 Lindner(1983)와 이기동(1998)의 이론을 통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비록 동사와 결합하여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up*을 분류하는 데

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up*을 공간적 수직성에 근거하여 추상적인 영역으로 연장되어 지는 것과 어떤 목표지점에 도달하려는 목표달성의 *up*, 그리고 완결성과 완성을 나타내는 *up*으로 분류함으로서 *up*의 의미 분화에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하여 막연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구동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 구동사와 불변화사의 은유적 확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출판사별 2종의⁷⁾ 중학교 및 고등학교 영어교과서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출판사는 지학사, 두산이다. 출판사별 중1, 2, 3과 고1, 2, 3학년 교재 6권씩 모두 12권의 교재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출판사별 저자 및 서명은 다음과 같다.

<두산>

장영희, 김진철, 김성철, 정소영, 이기태, John Eric Feldt.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김성곤, 권혁승, 한정임, 박용예, 김재명, Phillip A. O'Neill. 2003. High School English for Everyone, I, II.

<지학사>

이성호, 이기정, 이다미, 홍민표, 박인순, 홍영희. 2003. Middle School English 1, 2, 3.

이맹성, 황적륜, 김영석, 김길중, 양현권, 김진완, 임상미. 2003. High

7) 7차 교육과정은 2001년도부터 중학교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고등학교2학년까지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 전 학년에 걸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1 교과서부터 고등영어II까지 동일한 출판사에서 발행된 교과서들을 수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2종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School English for Everyone, I, II.

본 연구에서 조사할 구동사는 전부 30개로 알파벳 순서로 된 목록은 아래와 같다.⁸⁾

- (1) break out, carry out, clean off, clean out, clean up, come across, get down, get over, get up, let down, look after, look back, look down, look up, make up, pick up, put off, put out, see off, see out, sit down, sit up, step down, stand out, stand up, take off, turn down, turn off, turn on, turn up

이 구동사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예문들은 앞에서 언급한 교과서를 각각 텍스트파일로 저장하여 검색하였다.

3.2 연구방법

어휘의미를 분석하는 틀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Driven & Verspoor 1998). 하나는 형태(form)를 중심으로 그 형태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concept)을 중심으로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첫 번째 접

8) 이 구동사들은 6차 중등 교과서에 사용된 구동사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중 · 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구동사의 인지언어학적 분석'(김은일 · 박매란, 2002)에 제시된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근법은 한 단어를 중심으로 그 단어가 갖는 다양한 의미들이 어떻게 인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므로 자연적으로 다의어(polysemy)와 동음어(homophone)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반면, 두 번째 접근법은 한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과 연관된 단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문제를 다루므로 유의어(synonym), 반의어(antonym), 어휘장(lexical field)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접근법에 따라 형태 및 개념을 중심으로 구동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접근법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구동사를 4가지 분류-원형의미:확장의미, 문자적 의미:관용적 의미, 다양한 의미, 의미적으로 연관된 의미-로 나누어 분석 할 것인데 이는 선행연구인 김은일·박매란(2001)의 방법을 참조한 것이다.

3.2.1 형태중심의 연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은유적 확장의 양상과 부호화(coding)에 대해 설명하겠다.

1) 은유적 확장

은유적 확장은 원형의미의 용법을 다른 국면(facet)에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의미 확장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임지룡 1997).

- (2) a. 구체성 → 추상성
- b. 공간 → 시간 → 추상
- c.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

이 양상들을 예를 통해 살펴보자. (2a)는 ‘밝다’가 빛(구체성)이 밝은데서 사리(추상성)가 밝은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그리고 (2b)는 ‘짧다’가 연필(공간)이 짧은데서 수업(시간)이 짧은 것으로, 또 경험(추상)이 짧은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2c)는 ‘짧다’가 연필(일반성)이 짧은데서 경험(비유성)이 짧은 것으로, 또 입이 짧은(관용성) 것으로 확대된다.

관용성을 제외한 다른 양상들은 주로 은유(metaphor)라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다.⁹⁾ Lakoff & Johnson(1980)에 따르면 은유란 어떤 것을 다른 것의 견지에서 이해하거나 경험하는 것이다. 그들은 은유를 근원영역(source domain)과 목표영역(target domain) 사이의 사상(mapping)으로 보는데,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사상이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관련된 대응물들의 연결이다.¹⁰⁾ 예를 들어 A PURPOSEFUL LIFE IS A JOURNEY¹¹⁾라는 개념적 은유를 생각해보자. 이 개념적 은유는 다음과 같은 언어 표현-*He's over the hill/ I'm past it (=I'm too old)/ He's gone off the rail/ Are you at a cross-roads in your life?*-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에 의하면 위의 언어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근원영역 즉 *journey*와 목표영역 즉 *life*사이의 사상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Lakoff & Turner(1989: 3-4)는 다음과 같은 사상관계를 제시한다:

- (3) a. The person leading a life is a traveller.
 b. His purposes are destinations.

9) 의미확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지과정은 은유 외에도 환유, 특수화, 일반화가 있다(Driven & Verspoor 1998).

10) 다른 개념들 중에서 용어가 사용된 원래의 개념영역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고 하고 용어가 새롭게 사용된 개념영역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고 한다.

11) 우리 마음속에서 개념 체계를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추상적인 개념적 은유는 보통 대문자를 사용하여 일반 언어표현에 쓰인 은유(linguistic metaphor)와 구별한다.

- c. The means for achieving purposes are routes.
- d. Difficulties in life are impediments to travel.
- e. Progress is the distance travelled.....

그들에 의하면 이런 사상관계에 의해 왜 여행에 관계되는 언어가 인생을 표현하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쓰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은유를 순전히 언어적 현상으로만 보고 언어사용에서 나타나는 개별적인 은유적 표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은유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은유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구동사를 암기하지 않고도 쉽게 원형의미로부터 확장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ook back*은 ‘뒤돌아보다’와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두 의미간의 관계는 즉, ‘회상하다’라는 의미로 은유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유에 관련된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관계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동사들의 원형의미와 함께 확장의미를 제시함으로써 두 의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은유와 관련하여 조사할 대상에 포함된 구동사는 다음과 같다.

(4) 구동사	원형의미(구체, 공간)	확장의미(시간, 추상)
look back	뒤돌아보다	(시간) 회상하다
look down	내려다보다	(마음) 무시하다
look up	쳐다보다	(마음) 존경하다
get over	넘어가다	(질병, 위기) 극복하다
step down	단을 내려가다	(지위) 하야하다
let down	내려가게 두다	(마음) 실망시키다
break out	깨고 나오다	(전쟁, 폭력, 질병) 발생하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제외시켜왔던 관용성에 대해 살펴보자. 위의 (2c)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일반적인 의미가 관용적인 의미로 확장된다. 일반적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문자적 의미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동사 *look after*의 관용적 의미는 ‘돌보다’이고, 문자적 의미는 ‘뒤따라가며 보다’이다. 그런데 한국인 학습자는 구동사 *look after*를 학습할 때 주로 관용적인 의미만 암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오히려 원어민들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도 교과서에 소개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구동사는 다음과 같다.

(5) 구동사	문자적 의미	관용적 의미
look after	뒤따라가며 보다	돌보다
put off	떼어 놓다	연기하다
stand out	밖에 서 있다	돌보이다; 뛰어나다
turn up	돌려서 높이다	나타나다
put out	내놓다	끄다
look up	쳐다보다	찾다
turn down	돌려서 낮추다	거절하다
carry out	운반해 가다	수행하다

지금까지 은유 확장의 양상과 관용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다음절에서는 부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 부호화

인간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인지구조를 이용하여 새로운 문제에 접근한다. 외국어습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모국어에 관한 언어지식을 갖고서 새로운 목표어(target language)에 접근한다. 모국어에 대한 언어지식이 목표어를 습득할 때 긍정적 전이(transfer)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부정적 전이, 즉 간섭(interference)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Brown 2000: 94-95). 간섭현상의 하나로서 영어에서는 하나의 표현으로 존재하는 것이 한국어로는 다양한 표현으로 부호화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make up*은 ‘구성하다’, ‘화해하다’, ‘결심하다’ 그리고 ‘보충하다’ 등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부호화되어 있다. 학습자가 *make up*을 이 중의 하나의 의미로만 학습한다면 학습하지 않은 다른 의미에 관해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 다른 표현으로 부호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여러 가지 표현 사이의 의미적 관계가 인지적으

로 멀리 느껴지기 때문이다. *make up*의 경우가 앞 절에서 논의한 원형의 미 혹은 문자적 의미에서 확대된 의미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의미들 중에서 어떤 의미도 원형의미 혹은 문자적 의미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구동사의 다양한 의미가 교과서에 골고루 잘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할 구동사는 다음과 같다.

- | | |
|--------------|---|
| (6) take off | (옷) 벗다; (비행기) 이륙하다; (시간) 쉬다 |
| make up | (얼굴) 화장하다; (사람) 화해하다; (수업) 보충하다; (이야기); 꾸미다; (집단) 구성하다; (마음) 결심하다 |
| turn off | (전기, 시동) 끄다; (물) 잠그다 |
| turn on | (전기) 켜다; (수도) 틀다; (시동) 걸다 |
| come across | (사람) 우연히 만나다; (물건) 우연히 발견하다 |
| pick up | (물건) 집어들다; (사람) 차로 태워주다; (언어) 익히다 |

지금까지 형태 중심의 연구로서 의미 확장의 양상과 부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개념중심의 연구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3.2.2 개념중심의 연구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접근법으로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을 찾을 수 있다. 단어들끼리는 의미가 유사하거나(예, *young*과 *adolescent*), 의미가 반대되거나(예, *boy*와 *girl*), 혹은 같은 개념 영역에 속하여(예, *breakfast*,

lunch와 brunch) 서로 연관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동사도 의미적으로 연관된 것들이 있다. 그런데 학습자가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 중 일부만 알고 있다면 당연히 표현력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일어나다'와 '앉다'의 의미로 *stand up*과 *sit down* 만을 (주로 암기를 통해) 학습함으로써 *sit up*(일어나 앉다)과 같은 표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가 중등 영어 교과서에서 특정 구동사에 제한되지 않고 끌고루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할 구동사는 다음과 같다. 조사의 초점은 *stand up*과 *sit down*과 더불어 *sit up*이 제시되고 있는지, *get up*과 더불어 *get down*이 제시되고 있는지, *turn on*과 *turn off*와 더불어 *turn up*과 *turn down*이 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see off*와 더불어 *see out*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7) a. stand up; sit down; sit up
 b. get up; get down
 c. turn on; turn off; turn up; turn down
 d. see off; see out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연구 질문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과서에서 확장 의미가 원형 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나? 둘째,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제시되고 있나? 셋째, 다양한 의미를 지닌 구동사가 한국어로 표현되는 만큼의 다양한 의미로 제시되고 있나? 넷째, 의미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구동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나? 이 질문을 바탕으로 다

음절에서는 구동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논의하고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V 구동사의 분석 및 교수방안

4.1 분석결과 및 토의

앞 절에서 제시된 4가지 연구 질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자.

4.1.1 원형의미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

확장의미가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은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되고 있는지를 각 교과서별로 조사하여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에서 ●는 원형의미를, ►는 확장의미를 나타낸다. 구동사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모두로 제시되어 있으면 ●►로 표시하였고, 두 의미 중 한 가지 의미만 제시되어 있으면 각 해당되는 기호로 표시하였다.

<표 1> 교과서별 원형의미와 확장의미의 분포

	두산 7차	지학 7차
break out	▶	●
look back		●
look down	●	●
look up	●	●
get over		
step down		
let down		

교과서에서 추출한 구동사 중 동일한 구동사가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모두 제시된 경우는 없었다. 총 7개의 구동사 중 단 1개의 구동사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제시한 예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학습자들이 은유의 개념을 이용하여 원형의미에서 출발하여 확장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에 는 힘들다.

목표어인 영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원형의미와 확장의미 사이에 작용하는 은유에 대한 이해는 꼭 필요하다.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는 Lakoff & Johnson(1980)의 지적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를 단순히 암기할 것이 아니라, 은유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구동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예문은 두산과 지학에서 발췌한 실제 예문으로 (1a)가 원형의미이고, (1b)가 확장의미이다.

(1) a. We *broke out* of the huddle with a shout. (지학 고II)

b. Many countries are developing new weapons, and these weapons are so powerful that once a war *breaks out*, the outcome will be deadly. (두산 중3)

위 (1a)와 (1b)에 나타난 *break out*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각각 ‘뚫고 나오다’와 ‘발발하다’와 같이 각기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나 이것을 원형의 미에서 생각해보면 모두 하나의 공통적인 사실에서 출발하여 은유적으로 확대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즉, *break*(부수다, 깨뜨리다)와 *out*(밖으로)라는 의미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break*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사물에 힘을 가하여 그 사물을 원래 상태에서 변형시킨다는 기본의미에서 출발한다. 즉 *I broke the window*와 같은 문장은 *break*가 가장 구체적으로 즉, 원형의미로 쓰인 예라고 볼 수 있다. *I need to break this 1,000 won bill*에서는 비록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는 않으나 원래 상태(개념 상 값어치가 큰)에서 변화(더 작은 단위들로 나눔)를 일으킨다는 은유적인 확대가 일어난 표현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1a, b)의 예로 돌아가 보자. (1a)의 의미에서는 우리를 싸고 있는 무리를 나누고 *out* ‘밖으로’ 나온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b)에서 *break out*은 ‘전쟁이 발발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 의미 또한 은유적 개념으로 이해해보면 원형의 의미와 확장의미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리라 생각된다. 즉,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상태를 뚫고 혹은 부수고, 불만이나 대립 같은 것들이 불거져 나왔을 때 일어나거나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동사의 원형의미, 즉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문장과 확장된 표현을 함께 제시해준다면 학습자들이 구동사를 무조건적으로 암기하지 않고, 이

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형의미와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에 관련된 동사들 중 원형의미만으로 제시되어있는 다른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Once across the water, you never *look back* at me. (지학 고Ⅱ)

위의 예문의 *look back*(뒤돌아 보다)은 원형의미 그대로 제시되었다. *look back*은 ‘뒤돌아 보다’라는 구체적 행위에서 시작하여 ‘회상하다’라는 은유적 확대의 의미로도 종종 쓰인다. 따라서 (2)와 같은 문장과 함께 *look back*이 ‘회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다음과 같은 예문 (3)을 제시해준다면 구동사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3) When I *look back* on those days I realize I was desperately unhappy.

이 밖에 다른 구동사들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각 교과서에 제시된 *look down*이 쓰인 예문들이다.

(4) a. How exciting it would be to live in a space colony, *looking down* on the blue and white Earth, the third rock from the Sun! (두산 고Ⅱ)

b. The doctor may check your temperature. He may *look down* your throat and listen to your heart. (지학 중1)

이들 예문에서 *look down*은 모두 원형의미 그대로 ‘내려다보다’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look down*은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무시하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사실, ‘내려다보다’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도 ‘무시하다’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이와 같은 유사성을 설명해주면서, 위의 예문들과 함께 *look down*이 ‘무시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문 (5)를 함께 제시하여 준다면 *look down*이라는 구동사를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5) You should not *look down* on a person only because he is poor.

다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look up*이라는 표현을 살펴보자. 다음은 교과서에 나타난 예문들이다.

(6) a. He *looked up* at me with glazed eyes. (두산 고 I)

b. At the top, I inched toward the edge of the cliff and *looked up*. (지학 고 II)

이들 예문 역시 모두 원형의미로만 제시되었다. ‘위로 보다’라는 의미 또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존경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따라서 *look up*이라는 구동사를 학습할 때 원형의미와 더불어 확장의미를 함께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look up*이 ‘존경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7) A boy needs a father he can *look up* to.

*look up*과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look down*을 연관시켜 서로 반대되는 의

미를 함께 제시해주는 것도 이들 구동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get over*은 구체적인 사물을 ‘넘어가다’라는 원형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나 장애를 넘어가다 즉, ‘극복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각각 원형의미와 확장의미로 쓰인 아래의 예들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 (8) a. He *got over* the hurdle.
- b. I think you need time to *get over* her.

예문 (8a)에서 *get over*는 구체적인 사물을 ‘넘다’의 의미로 쓰였고, (8b)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시련’을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쓰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형의미에서 확장되어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영어의 구동사들은 한국어에서의 쓰임과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영어에서 은유적으로 확장이 유사하게 일어나는 구동사들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구동사들의 경우, 하나의 구동사를 학습할 때 원형의미와 더불어 확장된 의미에 대한 설명과 그 예문들을 함께 제시해준다면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1.2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관용적 표현은 앞서 살펴본 원형의미와 확장된 의미와 유사하지만, 원형 의미보다 구동사 자체가 한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에 가깝

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관용적 표현들은 실제 영어에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관용적 의미와¹²⁾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아래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에서 ●는 문자적 의미를 ※는 관용적 의미를 나타낸다. 구동사가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면, ●※로 표시하였고, 두 의미 중에서 하나의 의미만 제시되어 있으면 각 해당되는 기호로 표시하였다.

<표 2> 교과서별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의 분포

	두산 7차	지학 7차
look after	※	※
look up	●※	●
carry out	※	※
put out		※
turn up		
put off		
turn down		
stand out		

교과서에서 발견된 구동사의 수는 모두 4개이다. 이들 중 두 가지의 의미 모두가 제시된 경우는 두산에서 1개로, (9a, b)의 2가지 경우뿐이다. 아래 예문에서 (9a)가 문자적 의미이고, (9b)가 관용적 의미이다.

12) 관용적 의미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사이가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1.1에서의 확장의미 구동사들보다 사용된 은유가 불분명하고, 그 구분 자체가 이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편의상 관용적 의미로 취급한다(김은일·박매란 2002).

(9) a. He *looked up* at me with glazed eyes. (두산 고Ⅱ)

On a clear night, you may be able to see approximately 2,000 stars just by *looking up*. (두산 고Ⅱ)

b. I *looked up* Insa-dong on the web and found that it indeed has all sorts of wonderful places. (두산 고공통)

(9a)의 예문에서는 두 문장 모두에서 *look up*이 ‘위로 보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9b)에서는 관용적 의미 ‘찾다’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본 확장의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등 영어교과서에서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8개의 관용적 의미에 비해 문자적 의미는 4개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제시되는 편이었다. 김은일·박매란(200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원어민들에게는 문자적 의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관용적 의미로만 구동사를 익힌다면 문자적 의미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한 번 살펴보자.

(10) a. They *look after* the truck and watch Ike chasing the truck down the road away from the church. (*Runaway Bride*)

b. They will *put us off* in these silly little boats to freeze. (*Titanic*)

위의 예문들은 영화대본에서¹³⁾ 발췌한 것으로 여기에 쓰인 구동사들은 모두 문자적 의미로 쓰였다. 즉, *look after*는 ‘뒤따라 지켜보다’라는 문자적

13) <http://www.script-o-rama.com>에 올려진 대본을 참조하였음.

의미 그대로이고, *put off*도 ‘떨어뜨려 놓다’라는 문자적 의미 그대로이다. 하지만 이들을 ‘돌보다’나 ‘연기하다’와 같이 관용적 의미로 해석하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관용적 표현들은 실제 영어에서 자주 쓰이지만,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아무 상관없이 보이는 두 단어(동사+불변화사)의 결합을 무조건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용표현은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되는 것이다. 비록, 원어민 화자들은 이러한 관용표현을 자연스럽게 습득할지라도,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화자들에게는 관용표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김은일·박배란(2002)의 지적한 것과 같이 원어민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자적 의미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동사의 경우는 교과서에서 문자적 의미를 지닌 예문을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4.1.3 과대부호화된 구동사

인간의 사고가 언어로 부호(code)화 됨에 있어서 언어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한 언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나 표현으로 부호화되는 반면 다른 언어에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어들로 부호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의 차이 혹은 환경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어의 *snow*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을 것이다.

눈(雪)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환경에서는 그 단어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언어로 부호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언어의 부호화로 인한 차이점들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어려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¹⁴⁾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한 단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동사 혹은 문장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영어 부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학습자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이 영어를 한국어 표현에 해당하는 만큼 영어로도 다양한 의미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각 교과서별로 조사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에서 각 번호는 아래 (11)의 각 번호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14) 강낙중(2000)은 한국인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찾고 여기에 영어 문법을 적용할 때 영어 원어민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를 영어로 옮길 때 'There is a father to me.'와 같은 영어 원어민이 사용하지 않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은 한국어는 '존재 중심'의 언어인 반면 영어는 '소유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이며 '영어식 사고'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표 3> 교과서별 다양한 의미의 분포

	두산 7차	지학 7차
take off	①②	①
make up	⑤	⑤⑥
turn off	①	①②
turn on		
come across		
pick up	①②④	①④

- (11) take off: ① (옷) 벗다; ② (비행기) 이륙하다; ③ (시간) 쉬다
 make up: ① (얼굴) 화장하다; ② (사람) 화해하다; ③ (수업) 보충하다;
 ④ (이야기) 꾸미다; ⑤ (집단) 구성하다; ⑥ (마음) 결심하다
 turn off: ① (전기, 시동) 끄다; ② (물) 잠그다
 turn on: ① (전기) 켜다; ② (수도) 틀다; ③ (시동) 걸다
 come across: ① (사람) 우연히 만나다; ② (물건) 우연히 발견하다
 pick up: ① (물건) 집어들다; ② (사람) 차로 태워주다; ③ (언어) 익히다
 ④ (의견) 선택하다

다양한 의미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추출된 구동사는 각 교과서 모두 4개였다. 두산에서 발견된 총 4개의 구동사 중 2개는 한 가지 의미만 제시되었고, 2개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제시되었다. 지학에서는 총 4개의 구동사 중 1개는 1가지 의미로, 3개는 2가지 이상의 의미로 제시되었다.

언어에 따라 부호화가 달라지는 것은 같은 개념에 대해서도 범주화가 달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동사 *turn off*를 예로 들어보자. 영어는 대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움직이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하나의 표현 즉, *turn off*로 부호화하는데 반해 한국어는 각 대상들을 구분하여 부호화하여, 전기의 경우는 ‘끄다’ 수도의 경우는 ‘잠그다’라는 표

현을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구동사 *turn on*의 경우, 영어는 대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하나의 표현, 즉 *turn on*으로 부호화하는데 반해, 한국어는 각 대상들을 구분하여 부호화하여, 전기의 경우는 ‘켜다’, 수도의 경우는 ‘틀다’, 그리고 시동의 경우는 ‘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put on*의 예를 들 수 있다. 영어에서는 대상에 상관없이 무엇가를 *put*(두어서) *on*(어딘가에 접촉) 시키면 *put on*이라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옷, 귀걸이, 안경, 모자, 양말에 상관없이 *put on*을 쓰지만, 한국어의 경우에는 옷을 ‘입다’ 귀걸이를 ‘끼다’ 안경, 모자를 ‘쓰다’ 양말을 ‘신다’로 각기 다르게 표현한다. 한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각 대상에 해당되는 표현 자체가 다르므로 여러 가지 표현 중 한 가지 표현만 익힌다면 영어표현이 다른 하나의 의미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put on*을 ‘입다’라는 의미로 학습한다면 ‘신다’, ‘끼다’, ‘쓰다’라는 의미로 구동사 *put on*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에서는 여러 대상을 구분하여 부호화하는 표현이지만, 영어에서는 구분하지 않는 표현인 경우에는 이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한 가지의 구동사 표현을 배우더라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 다루는 나머지 구동사들도 한국어에서는 다른 의미로 부호화하여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지만 영어에서는 같은 의미로 부호화하여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나머지 구동사들의 부호화에 대한 설명을 김은일·박매란(2002)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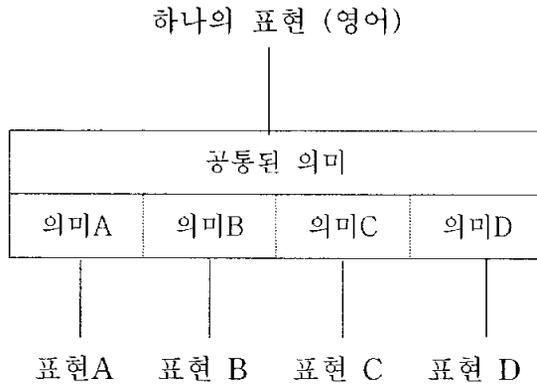
하나의 표현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의미의 경우를 *take off*라는 구동사를 통하여 살펴보자. *take off*는 ‘벗다’, ‘이륙하다’ 그리고 ‘쉬다’의 의미가 있

다.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해 구동사를 분석하면 *take*가 ‘취하다’, ‘갖다’의 의미이고 *off*가 ‘떼다’, ‘떨어지다’, 혹은 ‘떠나다’의 의미가 된다. 두 표현의 의미를 합하면 ‘취하여 떼어놓다’, ‘취하여 떠나다’, 혹은 ‘떨어져서 취하다’의 의미가 된다. 바로 이 공통된 의미가 사용되는 문맥, 특히 *off*뒤에 생략된 것에 따라 한국어로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옷을 취하여 몸에서 떼어놓으면 ‘벗다’가 되고, 비행기 자체를 취하여 육지에서 떠나보내면 ‘이륙하다’가 되고, 또 일에서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면 ‘쉬다’가 된다.

다음으로 *make up*을 살펴보자. *make up*은 ‘화장하다’, ‘화해하다’, ‘보충하다’, ‘꾸미다’, ‘구성하다’ 그리고 ‘결심하다’ 등의 많은 의미로 나타난다. 공통점을 발견하기 위해 *make up*을 분석하면, *make*가 ‘만들다’와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다’의 의미이고 *up*이 ‘높다’, ‘세우다’ 혹은 ‘좋다’의 의미이다. 두 표현의 의미를 합하면 ‘노력하여 좋게 만들다’, ‘노력하여 높여놓다’ 혹은 ‘노력하여 세우다’의 의미가 된다. 이 공통된 의미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한국어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력하여 얼굴을 좋게 만드는 것이 ‘화장하다’이고, 언쟁 후에 노력하여 마음을 좋게 만드는 것이 ‘화해하다’이고, 수업결손으로 인해 생긴 저하된 실력을 노력하여 높여놓는 것이 ‘보충하다’이고, 진실한 얘기에 거짓을 덧붙여 높여놓은 것이 ‘꾸미다’가 되고, 하위의 개념에 속하는 개개인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여 추슬러 세우는 것이 ‘결심하다’이다.

구동사가 갖는 다양한 의미 중 한 가지를 암기를 통하여 익히게 되면 그 구동사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게 되어 학습자는 그 구동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과서에서 구동사를 제시할 경우 하나의 표현으로 부호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그 공통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도와주는 작업이 필

요하다(김은일 · 박매란 2002).¹⁵⁾



<그림 2>

여기서 이 절을 정리하자면, 한국어와 부호화가 달라 다양한 의미로 표현되는 구동사의 경우에는, 그 구동사가 갖는 다양한 의미의 예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 구동사가 갖는 의미들의 공통된 의미특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더불어 영어와 한국어에서 각기 다르게 부호화되는 표현의 경우에는 그 차이를 설명해줌으로써, 학습자가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구동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1.4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

15) 다의어가 항상 공통된 의미자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다의어가 공통된 의미자질을 가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의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임지룡(1997)을 참조바람.

한국어 학습자들이 처음 모국어 즉 한국어를 배울 때 서로 의미가 연관된 단어들—반의어, 동의어, 유의어—을 함께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구동사를 학습할 때도 의미가 연관된 단어들을 함께 학습한다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의미적으로 연관된 영어 구동사들이 교과서에서 함께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아래 표에서 각 번호는 아래 (12)의 각 번호에 해당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둥근 원은 한국학습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구동사이고, 괄호로 된 원은 한국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구동사이다.

<표 4> 교과서별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의 분포

	두산 7차	지학 7차
turn	②	②
get		①
sit		(3)
see		①

(12) ① turn on; ② turn off; (3) turn up; (4) turn down

① get up; (2) get down

① stand up; ② sit down; (3) sit up

① see off; (2) see out

조사대상의 구동사가 교과서별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지학에서 1개만 제시되었다.

구동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한 가지로서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암기가 아닌 다양한 의사소통적 요구에 부응하는 표현력을 갖게 될 수 있다. 만약 학습자가 (13)과 같은 예문만 접하게 된다면 *turn on*과 *turn off*를 그냥 ‘켜다’와 ‘끄다’의 의미로만 알게 되어 ‘TV소리를 크게 하다’와 같은 표현을 잘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13) a. Let's *turn on* the TV. (6차 교학 중2)

b. *Turn off* the TV and go to bed. (6차 시사 중1)

하지만 학습자가 (13)의 예문과 함께 (14)의 예문도 함께 접하게 되면, *turn on*, *turn off*, *turn up* 그리고 *turn down*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아래 (15)와 같은 더 다양한 문맥이 요구하는 표현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But the sun *turns* its heating system *up* and *down* every 11 years. (6차 천재 고 I)

(15) a. He chops off a huge chunk of butter, drops it into an omelet pan and *turns up* the flame. (*Kramer vs. Kramer*)

b. She *turns down* the TV, then begins to walk out. (*Godfather*)

위와 같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밀어서 몸을 올라가게 하는 것’ 즉 ‘팔 굽혀 펴기’가 *push up*이 되고, ‘잡아 당겨서 몸을 올라가게 하는 것’ 즉 ‘턱걸이’가 *pull up*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see off*를 단순히 ‘배웅하다’의 의미로 암기하지 않고 ‘떠나는(*off*) 것을 보다(*see*)’와 같이 분석된 의미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see off*와 더불어 *see out*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16) a. It's so nice of you to *see me off*. (6차 시사 중3)

b. Silverman *sees* these gentlemen *out* and then lock up for the night. (*Terminator 2*)

구동사를 개별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의미적으로 연관된 구동사들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개별 구동사도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절을 마무리짓겠다. 다음절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교과서 및 영역별로 비교해 보겠다.

4.2 교과서별 영역별 및 6·7차 교과서 비교

4.2.1 교과서별 영역별 비교

지금까지의 분석을 교과서 및 영역별로 정리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아래 표에서 분모로 표시된 것은 발견된 구동사의 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분자로 표시된 것은 영역별로 나타내는 바가 다르다. 확장 의미에서는 원

형의미와 함께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가 제시된 구동사의 수를 나타내고, 관용적 의미에서는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도 함께 제시된 구동사의 수를 나타낸다. 다양한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제시된 구동사의 수를 나타내고 연관된 구동사는 조사하고자 했던 구동사가 발견된 수를 나타낸다.

<표 5> 교과서별 구동사의 사용실태 비교

	두산 7차	지학 7차	합 계
확장의미	0/3	0/4	0/7(0%)
관용적의미	1/4	0/4	1/8(18%)
다양한 의미	2/4	3/4	5/8(60%)
연관된 구동사	0/1	1/4	1/5(20%)
전체	3/12(25%)	4/16(25%)	7/28

두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위 표에서 백분율이 높을수록 필자가 지향하는 구동사의 학습 자료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두 교과서 모두 25%로 백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의미가 60%로 제일 높고, 연관된 구동사와 관용적 의미로 각각 20%와 12%로 그 뒤를 잇고, 마지막으로 확장 의미가 0%로 제일 낮다. 아래 순서에 속한 것일수록 교과서에서 그 의미들이 제대로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확장의미와 관용적 의미 부분이 상대적으로 잘 제시되지 못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4.2.2 6·7차 교과서 비교

마지막으로 6·7차 교과서에 나타난 구동사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두산 6·7차 교과서에 나타난 구동사 비교이다. 다음의 <표 6>을 살펴보자.

<표 6> 두산 6·7차 교과서에 나타난 구동사 비교

	두산6차	두산7차
확장의미	1/6	0/3
관용적의미	1/4	1/4
다양한 의미	3/6	2/4
연관된 구동사	1/3	0/1
전체	6/19 (32%)	3/12 (25%)

두산의 6차 교과서에서 나타난 확장 의미와 관련된 구동사는 총 6개가 제시되었고, 그 중 1개가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모두 제시되었다. 그러나 7차에서는 단 3개의 구동사 밖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중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가 모두 제시된 경우는 없었다. 관용적 의미와 관련된 구동사에서는 6·7차 모두 총 4개의 구동사가 발견되었고, 그 중 1개가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모두 제시되었다. 다양한 의미와 관련된 구동사에서는 6차에서는 총 6개의 구동사가 발견되었고, 본 연구에서 발견하고자 한 의미로 제시된 경우는 3개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해 7차에서는 총 4개의 구동사 중 2개가 다양한 의미로 제시되었다. 연관된 구동사와 관련된 구동사에서는 6차에서는 총 3개의 구동사가 발

견되었고, 그 중 1개의 구동사가 연관된 구동사와 함께 제시되었다. 그러나 7차에서는 1개의 구동사가 발견되었으나, 그와 관련된 구동사는 함께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의 6·7차에 나타난 전체 구동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6차에서 32%, 7차에서 25%로 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지학 교과서에 나타난 구동사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자.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지학 6·7차 교과서에 나타난 구동사 비교

	지학6차	지학7차
확장 의미	0/4	0/4
관용적 의미	1/7	0/4
다양한 의미	2/5	3/4
연관된 구동사	0/4	1/4
전체	3/20 (15%)	4/16 (25%)

지학의 6차 교과서에서 나타난 확장 의미와 관련된 구동사는 총 4개가 제시되었고, 그 중 1개도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 모두 제시되지 않았다. 7차에서도 4개의 구동사가 나타났으며, 그 중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가 모두 제시된 경우는 없었다.

관용적 의미와 관련된 구동사에서는 6차에서는 총 7개의 구동사가 발견되었고, 그 중 1개가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 모두 제시되었다. 7차에서는 4개의 구동사가 발견되었고, 그 중 1개도 문자적 의미와 관용적 의미가 함께 제시되지 않았다.

다양한 의미와 관련된 구동사에서는 6차에서는 총 5개의 구동사가 발견되었

고, 본 연구에서 발견하고자 한 의미로 제시된 경우는 2개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해 7차에서는 총 4개의 구동사 중 3개가 다양한 의미로 제시되었다.

연관된 구동사와 관련된 구동사에서 6차에서는 총 4개의 구동사가 발견되었고, 그 중 연관된 구동사와 함께 제시된 경우는 없었다. 7차에서는 4개의 구동사가 발견되었고, 그와 관련된 구동사는 1개가 제시되었다. 지학의 6·7차에 나타난 전체 구동사의 비율을 살펴보면 6차에서 15%, 7차에서 25%로 1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타난 구동사의 전체 평균은 두 교과서 모두 20%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음 각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전체 6·7차 교과서 비교

	6차 합계	7차 합계
확장 의미	2/20(10%)	0/7(0%)
관용적 의미	4/23(17%)	1/8(12%)
다양한 의미	14/27(52%)	5/8(60%)
연관된 구동사	7/18(39%)	1/5(20%)
전체	27/88	7/28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확장의미는 10%에서 0%로, 관용적 의미는 17%에서 12%로, 다양한 의미는 52%에서 60%로, 연관된 구동사는 39%에서 20%로 각각 변화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는 현행 교과서에서는 구동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뿐 아니라 12종의 6차 고등학교 ‘공통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구동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과서마다 구동사의 제시 분량이 일정치 않으며, 동일한

수준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구동사의 종류와 분량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과 현대영어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구동사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통 영어’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나타났다(우태재 1997).¹⁶⁾ 현대 영어, 특히 구어체 영어에서 구동사의 활용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⁷⁾ 이처럼 구동사의 활용이 영어를 활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이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구동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충분한 연구 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3 효과적 교수방안

지금까지의 논의의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앞 절에서 분석한 4가지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구동사들이 원형의미에서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추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추상적인 의미만 학습하게 되면 암기식의 학습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의미는 원

16) 자세한 구동사 목록은 송성현(1993), 우태재(1997) 참조바람.

17) 구동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왔다.

“The growth in the number of such compounds attributes to analytic tendencies within English, that is, the loss of inflection and the increased dependence on word order and function.” (Barber1964)

“Verb idioms are very useful, and very commonly used in English, because various verbs join with different particles or prepositions to form unique combination of meaning.” (Feare1980)

“Phrasal verbs are such an important part of colloquial English that no use can speak or understand conversational or informal English easily without a knowledge of them.” (Celce-Murcia M. & Larsen-Freeman1983)

형의미와 함께 학습하게 하고, 또 은유라는 중요한 인지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구동사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기분을 북돋아준다'라는 의미인 구동사 *warm up*은 *warm*의 의미도 불변화사 *up*의 의미도 그 전체적인 의미를 구성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관용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립된 항목으로서 개별 낱말처럼 암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론적 바탕으로 인해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구동사 지도는 그저 사전에 열거된 의미를 적당히 선택하여 사용하고 무조건 암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구동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인지의미론에서는 의미는 없고 기능만 있다는 불변화사에도 다른 모든 내용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개념체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한다. 즉, 그 의미가 체계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변화사가 구동사의 의미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문자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불변화사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변화사의 의미는 문자적 의미에서 은유적 의미로 확대되는데, 이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동사 학습시 제시해준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만 학습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의미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암기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구동사가 갖는 문자적인 의미를 놓치게 된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원어민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관용적인 의미로만 학습한 학습자에게는 생소한 의미로 제시되어 의사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용적 의미와 더불어 문자적 의미도 함께 학습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셋째, 한국어로는 다양하게 표현되는 구동사를 한 가지 표현으로만 학습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그 구동사의 일부 의미만 이해하게 되어 그 구동사의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의미로 사용된 구동사를 접하게 될 때 이해하기 힘들고 또 창의적으로 그 구동사를 활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구동사가 갖는 다양한 의미가 공통적으로 갖는 일반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미의 예를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구동사를 개별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그 구동사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양한 의사소통적 상황에 필요한 표현을 창의적으로 구사하기 어렵다. 다양한 의사소통적 문맥에 적합한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동사를 의미적으로 연관된 다른 구동사들과 함께 제시하여 같은 의미장에 속한 전체 속에서 개별 구동사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구동사를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사용된 30개의 구동사를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수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교수방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과서에서 인지적으로 관련된 의미들이나 구동사들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김은일·박매란 2002).

또한 비록 임의적으로 추출한 30개의 구동사에 대한 분석에 지나지 않지만 6·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구동사 학습량은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기본 어휘목록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에 알맞은 기본 구동사 목록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인지언어학적 접근으로 영어의 모든 구동사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사와 불변화사의 조합인 구동사 중에는 그 원형의미와 은유적 확장의미와의 관계로 설명이 가능한 것과 원형의미에서 너무 멀어져 설명이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지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의미들의 사용된 예나 의미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구동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학습자들이 충분히 구동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은일·박매란(2002)의 지적처럼, 학습시기가 서로 다른 의미들이나 표현들을 학습자가 연관시켜 이해하는 문제는 학습자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셋째, 앞에서 언급하였듯, 현재 7차 교육과정 도입이 전 학년에 걸쳐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교과서가 2종에 제한되어 이 연구의 결과가 전체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구동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설명이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낙중. (2000) 「따라만 하면 뇌구조가 바뀌는 영어식 사고·영어식 표현」. 서울: 홍익미디어 플러스.
- 김은일·박매란. (2000)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구동사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효율적인 학습을 위하여.” 「언어과학」 9: 34-54.
- 김정기. (1994) 「구동사해설집」. 서울: 거로출판사.
- 노수진. (2002) 「영어 구동사의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성현. (1993) 「중학영어와 구동사: 학교문법의 입장에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차정필. (1995) 「영어 구동사에 쓰이는 불변화사 UP과 OUT의 의미분석」.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우태제. (1997) 「영어 구동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기동. (1978) “Down의 의미분석과 그 응용.” 「영어교육」 16.
- _____. (1998) 「영어전치사연구」 (개정판). 서울: 교문사.
- _____. (2000)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 Barber, Charles. (1964) "Linguistic Change in Present-day English." *Alabama Linguistic and Philological Series 9*. AL: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Bolinger, D. (1971) *The Phrasal Verb in Englis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wn, H. Douglas.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White Plains: Addison Wesley Longman.
- Carroll, John B. (1962)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Celce-Murcia, M. & Diane Larsen-Freeman. (1999) *The Grammar Book: An ESL/EFL Teacher's Course* (2nd ed.). Rowley: Newbury House.
- Clayton, M. D. & L. S. Gray. (1999) "Going After the Phrasal Verb: An Alternative Approach to Classification." *TESOL Quarterly* 33(1).
- Courtney, R. (1986) *Longman Dictionary of Phrasal Verbs*. London: Longman.
- Daught, M & B. Laufer. (1985) "Avoidance of Phrasal Verbs—A Case for Contrastive Analysi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7: 73-80.
- Driven, Rene & Marjolijn Verspoor. (1988)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Fillmore, C. J. (1982)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s.),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Seoul: Hanshin.
- Fraser, B. (1976) *The Verb-particle Combination in English*. New York: Academic Press.
- Hook, J. N. (1981) *Two-word Verbs in English*. New York: Harcourt Brace Jovonovich.
- Hulstijin, J. & E. Marchena. (1989) "Avoidance: Grammatical or Semantic Caus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1: 241-255.

- Kennedy, Arthur G. (1920) *The Modern English Verb-Adverb Combination: Stanford University Publications in Language and Literature, Volume 1. No. 1.*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M.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rsen-Freeman, D. (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Rowley: Newbury House.
- Laufer, B. & S. Eliasson. (1993) "What Causes Avoidance in L2 Learning: L1-L2 Difference, L1-L2 Similarity, or L2 Complexity?"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5: 33-48.
- Linder, S. J. (1983) *A Lexico-Semantic Analysis of English Verb Particle Constructions with 'out' and 'up.'* Bloomington: University Linguistic Club.
- Palmer, F. 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Quirk, R. (1975) *A Reference Grammar for Students of English* London: Longman.
- Whorf, B. L. (1962) "On the Connection of Ideas." In J. B. Carroll (eds). 35-39.